

‘검은 침묵’서 ‘빛의 울림’으로…끝없는 사유를 채우다

김유섭 초대전 ‘Floating View 25’…오는 14일까지 우종미술관

시대의 결로 녹여낸 치열한 탐구의 흔적·시간의 파편 품어내 반복된 긁기·덧칠…침묵 속 미세하게 펼리는 감정의 결 응축

예술가의 시선과 관객의 내면이 만나는 사유의 공간, 회화로 펼쳐지다.

우종미술관(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은 오는 14일까지 2025 기획초대전으로 김유섭 작가 개인전을 연다.

김유섭은 베를린 국립 예술대학교와 조선대에서 오랜 기간 후학을 양성하며 교육자의 길을 걸었고, 2024년 긴 교육자의 삶을 마무리한 뒤 다시 예술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번 전시는 그가 죽적해온 삶의 감각과 사유를 바탕으로, 회화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를 더욱 진술하게 팀구하는 여정이다.

전시 주제는 ‘Floating View 25’. 떠오르고 떨어지는 감각의 흐름 속에서 포착된 회화적 풍경을 의미한다.

작가는 40여 년에 걸쳐 죽적해온 회화적 사유와 물성을 바탕으로 시

간과 기억, 감정이 화면 위에 겹겹이 쌓여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그의 회화는 한 장의 캔버스를 넘어서선다. 그는 조선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독일 베를린 국립 예술종합대학원에서 수학하며, 급진적인 현대미술과의 조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세계를 탐색했다. 그곳에서 형성된 미학적·철학적 사유는 이후 그의 예술 세계 전반을 이끄는 화두가 됐다.

작품에는 작가로서의 치열한 탐구의 흔적과 더불어 시대의 감정이 응축돼 있다. 캔버스 위 두텁게 쌓인 물감, 긁기와 문지르기의 흔적, 미세한 붓질의 결은 그의 신체성과 감정, 지나간 시간의 파편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화면에 남겨진 자국들은 기억과 감각이 떠오르는 순간을 시각화한 층위이기도 하다.

그의 대표적 시리즈 ‘검은 그림’과 ‘유색 그림’



“

은 서로 다른 색과 결로 이뤄진 하나의 사유의 연장선상에 있다.

‘검은 그림’ 시리즈에서 검정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모든 색을 품은 균원적 공간이자 사유의 시작점이 된다. 반복된 긁기와 덧칠은 시간의 층



‘Inside of western light’



‘Veil of Light’

위를 의미하며, 침묵 속에서 미세하게 펼리는 감정의 결을 드러낸다. ‘유색 그림’ 시리즈에서는 어둠 속 깨어나는 빛과 색의 에너지가 감정과 존재의 파동으로 확장된다.

두 시리즈는 ‘검은 침묵’에서 ‘빛의 울림’으로 이어지는 김유섭 회화의 여정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작 ‘Veil of the Light’에서는 빛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며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 회화 속 빛이 철학적 사유의 매개로 작동함을 보

여준다.

감정의 층위 속에서 스며나오는 빛, 반복된 행위의 흔적 속 퍼져나가는 고요한 울림은 회화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느끼는 것’임을 일깨운다.

우영인 우종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작품 속에 스며든 작가의 감정과 시간이 관객에게 고요하게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오늘, 다시 마주한 ‘이강하의 흔적들’

이강하미술관 ‘2025 LAM 열린 수장고’…내년 1월 25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2025 LAM 열린 수장고’ 전시 전경.

미술관의 수장고는 일반 관람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보물창고이자 미술관의 심장과 같은 핵심 공간이다. 이곳에 보관되는 작품과 자료들은 지역의 정신과 예술의 상징적 문화유산으로 여겨진다. 예술가의 작업실, 그리고 미술관 수장고를 틈새로 끌어놓은 것 같은 아카이브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강하미술관(LeeKangha Art Museum)은 내년 1월 25일까지 올해 마지막 전시이자 첫 아카이브전 ‘2025 LAM 열린 수장고’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이 보유한 소장 자료와 대표작을 바탕으로, 공립미술관이 수행하는 여러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이강하 작가가 1970년부터 2007년까지 남긴 대표 작업과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장 안에서 다양한 소장품을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다시 발견하게 된다.

전시장에는 이강하미술관 수장고에 보관·연구 중인 작품이 배치돼 있다. 한 개인으로 살아온 작가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브 자료와 소장품이 전시 작품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구성은 미술관의 보존·관리 같은 보이지 않는 기능까지 관람객이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문화적 향유의 폭을 넓히고, 미술관 접근성을 높여 공감과 소통의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은 “이번 아카이브 전시는 이 작가의 삶과 이후부터 미술관

개관까지 약 15년 동안 보존·연구해온 작품과 소장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소장품은 단순히 보관되는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 움직이는 문화자산이다. 앞으로도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아우르는 전시를 통해 일상 속 예술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조대의 미술, 내일을 그리다

개교 79주년 청년작가전…29일까지 김보현&실비아올드미술관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실험을 집약해 보여주는 전시가 진행 중이다.

조선대학교미술관(관장 조윤성)은 개교 79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김보현&실비아올드미술관에서 청년작가 기획전 ‘조대의 미술, 내일을 그리다’를 개최한다.

전시에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30대 청년작가 20명이 참여해 평면·입체·미디어·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77점을 선보인다.

이들의 작품은 다섯 가지 주제적 흐름으로 구성돼 동시대의 감각과 시선을 드러낸다.

자아와 타자, 과거와 현재에서 정체성과 관계를 탐구하는가 하면, 감정의 지우와 회복을 다루거나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인다.

기억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작품, 생명과 세계의 순환 구조를 탐구하는 작가들의 작업도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은 각자의 언어로 삶의 단면과 정서를 포착하며, 동시대 예술이 던지는 질문을 새롭게 시각화한다.



김보현&실비아올드미술관

조윤성 관장은 “이번 전시는 청년작가들의 실험과 도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조선대 미술의 전통을 오늘로 이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젊은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미술관으로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